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김규찬(최효자), 김남우(이찬호), 김미희, 김병을(이영숙), 김수자, 김윤주, 김정환(임영미), 김지한(유소정), 김춘화, 김형국(이오순), 김희규, 박군자, 박복례, 박영식(성미영), 박종삼(이명원), 방석대(차옥자), 송부현(김영진), 오영순, 오택현, 유승용(강민주), 유일환, 윤병을(백남실), 윤예원, 이기자, 이상학, 이상현, 장윤주(김현진), 정경석(박지순), 조성호(이주하), 채희춘(황영욱), 황근욱(이경주).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윤희진, 최유경, 강봉석, 김경업, 김규찬, 김만형, 김병을(이영숙), 김영진, 김정환(임영미), 김희규, 박종삼, 박지순, 백남실, 손정아, 오영순, 이기자, 이미향, 이상규, 이오순, 이찬호, 이춘취, 이희순B, 임형문, 장윤주, 전병구(이인숙), 최상결(이미향).

☞ **감사헌금**
 이필례, 강준식(김정연B), 김경대, 김병을(이영숙), 맹관순, 박복례, 박부웅(최귀남), 박영숙, 박지순, 박현섭(권희정), 방영배, 서형기(이희순B), 신현진, 심혜진, 이미향, 이인숙, 이종문, 이찬호, 이춘호, 임형문, 최기훈(정계숙), 최선미, 무 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윤희진, 이필례, 김민성, 김민혁, 김수현, 김정숙, 김춘화, 민옥희, 박복례, 박은숙, 박정숙, 박희영, 배병찬, 서재희, 송백현, 신지현, 신현진, 심은숙, 이경자, 이노을, 이미영, 이설아, 이인숙, 주성탁, 최봉순, 최효자, 무 명.

☞ **월정헌금**
 박춘화.

주간 성경연구 * 주일 5장, 평일 3장씩 읽으세요. *

2014년 제 7주 : 민수기 36장 - 신명기 20장			
주 일	민수기 36장 - 신명기 4장		
월요일	신명기 2 - 4장	목요일	신명기 12 - 14장
화요일	신명기 6 - 8장	금요일	신명기 15 - 17장
수요일	신명기 9 - 11장	토요일	신명기 18 - 20장

시무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방석대 이일로 천세력 윤병호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윤창식 방현욱 장명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교역자	부 목 사	윤희진		
	전 도 사	김성중 이필례		
찬양대	교육전도사	이승이 최유경		
	지 위 자	할 켈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만나 시온 · 애 면 : 최원지 연 질 : 이만수		
	반 주 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강민주 김상훈 김미희 유광희 이주하 정혜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만수	
솔 리 스트	김만나 김혜진 고광훈 장명환 고승진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이접은 : 김진숙 수리남 : 안석렬 이성욱 A X 국 : 김해철 A X 국 : 박동권 김명화 A X 국 : 이분희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멕시코 : 김홍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말교도스			

2014. 2. 9. 주일 예배 설교
 어떤 자세로 마음을 넓혀야 할까?
 설교 : 이진우 목사
 본문 : 고린도후서 6장 11-13절
 바울사도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혀 모든 오해와 불신과 의혹을 떨쳐 버리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덕으로 용납하고 포용하며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화합하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마음을 넓혀야 하겠습니까?

1. 우리의 입을 열어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이라고 말씀합니다.(11절)
 1) 11절 초두에 “고린도인들이여”라고 지명하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특별한 애정의 표시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 “입이 열렸다.”는 말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아무것도 가리운 것이 없이 온 정성과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넓어졌다.”는 말은 결국 미숙하고 허물 많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지만 마음을 넓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포용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2) 사실 입이 열리는 것과 마음을 넓히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고 넓히게 한 것은 결국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를 향하여 사랑으로 넓어진 바로 이 마음을 안고 그들을 향해 이 편지를 쓰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너희를 향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입을 열고,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역시 마음을 넓히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항상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는 서로가 함께 점층적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짝사랑은 비극이요, 슬픔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 사귀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며,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힘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 너희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12절)
 1) 사도바울은 그렇게 좋던 사도바울과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사이가 온갖 오해와 불신과 비난으로 가득 찬 이유가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심정(스프린크노이스)은 사람의 내장 즉 심장이나 신장이나 폐 등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부인 심장을 뜻하는 것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사랑이 바로 이 심장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마음이 좁아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으로 교만하여 자신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은혜와 은사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을 깨닫고 스스로 마음을 넓히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바로 내게 있는데 제 눈의 눈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만을 빼라고 소리치며 나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며 좁아진 마음을 열어 진실하고 솔직하며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부모에게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했습니다.(13절)
 1) 사도바울은 항상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자녀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위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항상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2)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영적 아버지라 스스로 부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실 아버지로써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오해가 생겨난 것은 사도바울의 고의적인 배신이나 경솔한 실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관용으로 용서하면서 “내가 자녀에게 말할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자기 자녀의 흉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며, 주님께서도 약한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 사도바울은 이제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요청합니다. 자식은 항상 부모를 섬길 때 특별한 효도는 못해도 부모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양심적 노력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서로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서로 보답하는 자세로 격려하며 세우며 힘이 되고 좁은 마음을 넓혀 오해를 풀어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주도 우리 모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2014
 No. 40 - 7
 2014. 2. 16.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밀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 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152-0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3 마길 18(개봉동)
- 18 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 2689-1230
- 홈페이지 : www.sunghyeon.or.kr

SGN® www.sgn.co.kr

